

## 여성의 욕구, 자아존중감과 성형태도에 관한 연구\*

전 경 란 · 이 명 희\*\*

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교수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Need, Self-Esteem, and Aesthetic Surgery Attitude of Female**

Kyoung-Ran Jeon · Myoung-Hee Lee\*\*

Professor, Dept. of Apparel Science & Environmental Design, Kong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2. 5. 13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s of need, self-esteem, body satisfaction on aesthetic surgery attitude of female. The method of the study was survey research by using questionnaires. Subjects were 813 females of 10's to 40's living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Gongju City, Chungchungnamdo.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were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Women with lower body satisfaction and self-esteem had a tendency to keep the secret of aesthetic surgery. Women in higher social class and having higher need for dominance showed also strong tendency to keep the secret of aesthetic surgery. Women with lower body satisfaction and having higher needs for achievement and exhibition appreciated the value of aesthetic surgery more. Women with lower body satisfaction and self-esteem but with higher need for exhibition and dominance were more willing to confirm the aesthetic surgery. Women with higher need for dominance but with lower self-esteem and body satisfaction were more willing to undergo aesthetic surgery in spite of high cost of surgery. Women having lower self-esteem, lower need for achievement, and lower body satisfaction were more willing to admit the risk tolerance of aesthetic surgery. As a conclusion, need, self-esteem, and body satisfaction constituted important characteristics which could affect aesthetic surgery attitude directly. Women having higher need were more willing to admit the change of body shape via aesthetic surgery.

---

\*본 연구는 2001년도 공주대학교 자체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Key Words : need(욕구), self-esteem(자아존중감), body satisfaction(신체만족도),  
aesthetic surgery attitude(성형태도)

## I. 서론

최근에 여성들의 사회참여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외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고조되어 적극적으로 외모를 개선하려는 성형수술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즉 화장을 하는 일차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의 외모개선 행동을 넘어서 장기적이고 적극적 수준의 외모개선 방법으로 미용성형의 방법을 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방법에는 수술에 대한 심리적 갈등이 형성되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성형수술은 정상적인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려는 행동이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높은 기대감뿐 아니라 여성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관도 성형수술에 대한 심리적 갈등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동기화 되어 작용하면서 성형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여성의 외모에 대한 내면적인 욕구는 외면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쳐 불만스러운 신체부위에 대하여 성형과 같은 외모개선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도 신체만족도나 다양한 외모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외모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련 선행연구에서 신체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쳐서 자신의 신체에 긍정적일수록 자신감이나 자아존중감이 증가하게 되고(Tucker, 1982), 신체외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면 피해의식과 자신감의 결여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이 저하된다고 하였다(양계민, 1993). 또한 일반적으로 매스컴에서 이상적인 미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인하여 여성들은 자기자신을 비하하는 신체 평가를 하게 되어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Lennon & Rudd, 1994; 이미숙, 2000). 그러나 이상적인 미의 제시는 외모관리 행동을 촉진시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게

하는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적 이점을 얻게 한다(Bloch & Richins, 1992). 따라서 성형으로 인한 외모개선은 저하된 자아존중감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외모를 아름답게 하려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므로 개인의 욕구 및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과 성형태도를 관련지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개인의 심리적 변수로 작용하는 욕구와 자아존중감이 신체만족도와 함께 성형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여성의 욕구,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와 성형태도와의 상호관련성을 조사하고 이들 변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 성형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여성의 욕구 및 자아존중감과 외모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성형과 같은 외모관련 행동을 파악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인의 행동과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며 의상사회심리학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욕구, 자아존중감과 외모

인간행동에는 그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인간 본질 속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일반적으로 욕구(needs)라고 표현하고 있다. Murray는 "욕구"란 뇌속 부위에 존재하는 힘을 나타내는 가설적인 구성개념으로 정의하고 그 힘은 내적·외적으로 충동된 힘으로서 다른 심리적인 과정(psychological process)을 조직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욕구란 인간이 지각하고, 생각하며, 느끼고, 행동하는 방법을 조직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다(이훈구, 2001). 욕구에 관한 분류는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

나, Murray에 의하면, 욕구는 생리적 욕구와 심리 발생적 욕구의 두 가지로 크게 구별된다. 또한 Maslow는 욕구를 계층적 단계로 제안하면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자아실현 욕구가 있다고 하였는데 자아실현 욕구는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려는 욕구를 의미한다(강혜원, 1999; 이훈구, 2001).

Creekmore(1963)는 일찍이 욕구와 의복과의 관계 연구에서 소속에 대한 욕구와 자존심에 대한 욕구가 높을수록 의복의 신분상징성이 높음을 밝혔고, Pasnak과 Ayres(1969)는 유행혁신자와 비혁신자의 자아실현 욕구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유행혁신자가 자기수용이 더 높다고 하였다. Perry, Schutz와 Rucker(1983)의 연구에서는 자아실현이 높을수록 의복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욕구 중에서 성취, 지배, 과시욕구는 특히 의복을 통한 외모관심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박찬부(1980)는 성취욕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주의성, 실용성이 높아서 의복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였으며, 김미경(1990)은 성취욕구 및 과시욕구가 높을수록 의복의 장식성을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정하진, 이인자(1983)의 연구에서는 성취욕이 높을수록 의복선택에서 개성표현, 실용성, 경제성에 관심이 많았으며, 과시욕구는 의복의 개성표현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이금실, 강혜원(1978)의 연구에서는 과시욕구가 많은 사람은 의복의 신분상징성, 유행, 과시성에 관심이 높아 남의 눈에 잘 띄는 모습으로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박광희, 강혜원(1984)은 지배욕구가 강한 사람이 더욱 개성적인 의복을 중요시하였으며 의복에 대한 자기 평가도 높다고 하였고, 문화자(1985)의 연구에서도 지배욕구는 의복의 개성표현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개인의 욕구는 의복을 통한 외모치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성형태도에도 반영되어 개인의 성취, 지배, 과시욕구가 다양한 성형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하나의 특별한 객체인 자아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정의되며, 자아개념의 평가적 구성요소로서 자기자

신을 좋아하는 정도를 말하며 자신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Rosenberg, 1965). 또한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수용이라는 두 가지 경험에 대한 자기평가의 결과라고 정의할 수 있다(Newman, 1975).

Kaiser(1985)는 자아와 신체외모의 관련 연구에서 외모관리는 자아에 관한 시각적 그림을 창조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아를 이해하는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미의 이상형은 매스미디어에 등장하는 이미지와의 비교로 인하여 여성들의 자아존중감을 낮아지게 한다고 하였다(Lennon & Rudd, 1994). 그러나 다이어트, 운동, 화장품 사용, 의복선택 등의 외모관리 행동들은 미적 향상과 자아존중감 향상,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이점을 얻게 한다(Bloch & Richins, 1992). Jackson, Sullivan과 Rostler(1988)는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아존중이 높게 형성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정도가 자아존중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ee(1997)의 연구에서는 신체외모에 대한 감정과 태도가 자아에 대한 개인의 감정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외모가 여성들의 자아존중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의 자기 가치에 대한 감정을 자아존중이라고 하면서 자아존중은 여성의 매력과 긍정적인 관계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것은 자신의 신체외모에 매력을 느끼는 여성은 자아존중감이 높게 형성됨을 시사한다.

## 2. 성형태도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불만족을 느끼게 되었을 때 갈등과 함께 외모를 향상시키고 싶은 심리적 압력을 받게 되므로 성형하려는 태도를 지니게 된다. 과거에는 부모에게서 받은 몸을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것을 금기시하여 거부감을 가졌으나 현재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미용성형

수술의 빈도가 높아졌다. 미용성형수술은 병적인 원인이 아닌 정상인 상태를 가지고 태어난 신체적 조건을 더욱 아름답게 변형하고 싶어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외모를 아름답게 변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이두형, 장충현, 1994). Simon은 “신체이미지와 성형수술”에서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더욱 긍정적인 감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Mary, Joanne, & Kim, 1995). 신체에 대한 인식은 내적인 관점에서 자아와 상당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Cash, Winstead & Janda, 1985). 특히 여성들은 남성보다 외모평가와 근육정도, 건강정도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가 약하게 나타났지만, 외모지향성 및 건강지향성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신체적 외모를 개선하려는 욕구가 크게 나타났다.

사람들의 성형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미용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들이 점차 증가하여 마침내 미용수술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에 이르렀다. 청소년기의 외모와 자아개념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44%가 자신의 외모변화를 원한다고 함으로써 성형수술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Musa & Roach, 1979). 또 미용수술을 원하는 대상자 중 대다수가 여성이었는데 이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의 매력에 더욱 큰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Franzoi & Stephanie, 1984).

미용성형수술을 하려는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외모가 놀랄 만큼 향상되기를 바램, 자신에 대한 느낌의 향상, 자신의 외모에 대해 칭찬을 받고 싶음, 자의식의 감소, 어려 보이는 효과, 젊어졌다는 느낌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의 76%가 성형수술로 인해 신체적 기대감이 거의 채워졌다고 하였으며, 오직 4%만이 “내가 원했던 만큼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Cash & Horton, 1983). 국내에서도 성형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수술 후의 만족정도에 대해서 전체의 67.9%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형수술 후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성형비용이 부담스럽고,

기대한 것만큼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며, 수술한 흔적이 남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신체만족 집단의 경우 전체대상자의 30.8%가 성형수술을 원하는 반면에 신체불만족 집단의 경우는 44.2%가 성형수술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에 불만족할수록 성형수술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김은주, 2001). 유영천, 이두형, 장충현(1994)의 연구에서도 미용성형수술의 결과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전보다 더 만족했다고 함으로써 Cash와 Horton(1983)의 연구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었고, 성형 후의 태도는 긍정적이었다.

따라서 미용성형은 신체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외모관리수단이 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상적인 외모에 근접시켜 신체만족도를 증가시키고자 성형을 하면서 외모에 대한 중요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욕구,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의 차이를 밝힌다.

둘째,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성형태도의 차이를 밝힌다.

셋째, 욕구,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와 성형태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본다.

넷째, 성형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욕구측정은 황정규(1968)가 제작한 표준화검사 중에서 과시, 지배, 성취욕구의 3개 변인을 선택하여 각각 7문항씩 총2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79)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선행연구(이은실, 2000)에서 신뢰도가 낮은 1개 문항을 제외하고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신체만족도는 얼굴윤곽, 눈, 코, 입술, 턱, 가슴, 등, 허리, 배, 엉덩이, 다리, 키, 몸무게, 체형의 신체 14부위의 만족도를 5점 Likert 척도로 조사하였다.

성형태도 척도는 본 연구자가 새로이 제작하였으며, 내용타당도를 위해 성형전문의사 2명과 전문분야 교수 3명의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이것을 다시 여대생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하여 부적절한 내용을 수정하였다. 성형태도의 내용은 전반적인 성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로 성형비밀, 성형가치, 성형동조, 성형비용지불, 성형위험수용의 5개 차원을 포함하여 총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단계 Likert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5개 차원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Cronbach의  $\alpha$  신뢰도 검사 결과 성형비밀 3문항에 대해서는 .67, 성형가치 4문항은 .75, 성형동조 5문항은 .84, 성형비용지불 4문항은 .75, 성형위험수용 3문항은 .7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형태도 하위변인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형비밀(secret of aesthetic surgery)

자신이 성형수술한 것을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면서 매력적으로 보아주기를 원하거나, 수술 전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기억을 일부러 지워버리려는 태도이다.

(2) 성형가치(value of aesthetic surgery)

자신의 신체조건이 사회적 관계와 정신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외모변화를 향상시키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큰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이다.

(3) 성형동조(conformity of aesthetic surgery)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외모에 대한 심리적 압력 때문에 타인의 외모나 의견을 따라 성형하려는 태도이다.

(4) 성형비용지불(payment of aesthetic surgery cost)

성형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려는 태도이다.

(5) 성형위험수용(risk tolerance of aesthetic

surgery)

위험하더라도 성형을 희망함으로써 성형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변인으로 연령, 직업, 학력, 사회계층을 조사하였다. 직업은 대학생과 일반여성으로 나누어 일반여성의 경우는 사무직, 서비스직, 전업주부, 기타 집단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사회계층은 주관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9단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자료분석시에는 상층과 중의 상층까지를 상류층으로, 중의 중층을 중류층으로, 하층과 중의 하층을 하류층으로 재분류하여 사용하였다.

### 3. 자료수집, 연구대상 및 자료분석방법

본 조사는 2001년 5월에 실시되었다. 피험자는 10~40대의 여성 813명으로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거주하는 여성을 임의표집하였다. 연령은 18~19세의 10대 후반이 211명(26.0%), 20대 전반이 262명(32.2%), 20대 후반이 93명(11.4%), 30대가 187명(23.0%), 40대가 60명(7.4%)이었다. 직업은 대학생 430명(52.9%), 사무직 143명(17.6%), 서비스직 116명(14.3%), 전업주부 90명(11.1%), 기타직이 34명(4.2%)이었다. 사회계층은 상류층 150명(18.5%), 중류층 444명(54.6%), 하류층 219명(26.9%)이었으며, 학력은 고졸 이하가 150명(18.5%), 대학생이 430명(52.9%), 대졸 이상이 233명(28.7%)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욕구,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의 차이

연령, 직업, 학력, 사회계층에 따른 욕구, 자아존

중감, 신체만족도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는데 이러한 차이는 MacGillivray와 Wilson(1997), 이미숙(2000)의 연구와 일치한다. 즉 10대와 20대

<표 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욕구,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의 차이

(n=813)

인구통계적 변인		성취욕구	지배욕구	과시욕구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연령	10대	3.80(a)	3.04(b)	3.27(a)	3.35	2.89(b)
	20대 전반	3.80(a)	3.16(a)	3.30(a)	3.41	2.89(b)
	20대 후반	3.74(ab)	3.04(ab)	3.08(b)	3.40	3.01(b)
	30대	3.57(c)	2.94(b)	2.95(b)	3.38	2.93(b)
	40대	3.63(bc)	3.00(bc)	2.97(b)	3.41	3.20(a)
	F	7.31**	3.97**	16.60**	.50	4.07**
직업	대학생	3.79(a)	3.12(a)	3.29(a)	3.39	2.91(b)
	사무직	3.71(a)	3.02(a)	3.04(b)	3.39	2.94(b)
	서비스직	3.69(a)	3.05(a)	3.09(b)	3.42	3.10(a)
	전업주부	3.53(b)	2.83(b)	2.88(c)	3.24	2.81(b)
	F	6.76**	5.84**	19.86**	2.53	4.64**
학력	고졸 이하	3.56(b)	2.82(b)	2.88(c)	3.30(b)	2.95
	대학 재학	3.79(a)	3.11(a)	3.28(a)	3.38(ab)	2.91
	대졸 이상	3.72(a)	3.09(a)	3.11(b)	3.46(a)	2.99
	F	10.22**	13.56**	32.91**	4.39*	1.30
사회계층	하류층	3.69	3.01(b)	3.15(b)	3.28(b)	2.88(b)
	중류층	3.72	3.07(b)	3.13(b)	3.37(b)	2.92(b)
	상류층	3.79	3.25(a)	3.26(a)	3.58(a)	3.06(a)
	F	1.85	10.31**	3.41*	15.92**	4.69**

\*p<.05, \*\*p<.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05)

<표 1>에서 보면 연령에 따른 차이는 욕구의 모든 변인이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지배욕구는 20대 전반이 가장 높았으며 성취욕구와 과시욕구는 10대와 20대 전반이 높았고 30, 40대 집단이 낮았다. 10대, 20대 집단은 야심적이고 정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성취하고자 하는 과업이 많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심리적 특성 때문에 특히 성취 및 과시욕구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0, 40대 집단이 욕구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은 다수의 여성이 결혼하여 아이를 키우는 기간으로 가정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체만족도는 40대가 30대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

는 외모관심이 높고 미적 감각과 기대수준이 높은 시기이므로 자신의 이상적 체형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으므로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직업에 따른 욕구의 차이를 볼 때 대학생, 사무직, 서비스직은 전업주부보다 성취, 지배욕구가 높았으며 대학생 집단은 특히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과시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욕구가 높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게 됨으로 경쟁적인 동기가 작용하여 여러 가지 욕구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직업에 따른 신체만족도는 서비스직이 가장 높았

다. 판매직과 같은 서비스직은 여러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많으므로 외모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며, 외모가 취업여부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교적 신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자아존중감은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욕구는 학력에 따라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체로 대학생이 높았고 대학생은 특히 타 집단에 비해 과시욕구가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은 어려운 일을 잘 처리하여 남에게 자랑하고 싶다면, 남보다 여러 가지 일을 좀 더 잘하고 싶고, 하던 일을 끝까지 성공시키고 싶은 심리발생적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하면 성숙하여져서 과시성이 줄어들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대학생의 과시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본다. 학력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대졸 이상의 여성이 가장 높았다. 학력수준이 높은 대졸 이상의 성인기에는 가족, 친구들의 지지와 사회활동에의 참여로 인하여 자신이 유능하면서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학력에 따라 신체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회계층에 따라 지배 및 과시욕구,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네 변인 모두 상류층이 가장 높았다.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와 남의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과시욕구가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에 대하여 가치를 높게 부여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심리상태가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체만족도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좀 더 만족한다는 이영윤과 강혜원(198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아 신체외모에 관심을 둘 여유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성형태도의 차이

연령 및 직업에 따른 성형태도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 검정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면 연령에 따라 성형가치, 성형동조, 성형위험수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형가치는 20대가 높게 평가하였고 40대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20대는 결혼 적령기로 교제가 많아지는 시기이며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여성이 많으므로 외모가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되어 외모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성형수술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성형동조 현상은 20대가

<표 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성형태도의 차이

(n=813)

인구통계적 변인		성형태도	성형비밀	성형가치	성형동조	성형비용지불	성형위험수용
연령	10대		2.66	3.16(ab)	2.58(ab)	2.15	1.83(b)
	20대 전반		2.58	3.27(a)	2.76(a)	2.28	2.03(ab)
	20대 후반		2.59	3.32(a)	2.71(a)	2.29	2.07(a)
	30대		2.56	3.18(a)	2.62(ab)	2.65	2.02(ab)
	40대		2.56	2.97(b)	2.45(b)	2.12	1.84(b)
	F		.55	2.89*	2.50*	1.29	3.16*
직업	대학생		2.65(a)	3.21	2.65	2.22	1.93
	사무직		2.45(b)	3.22	2.61	2.18	1.92
	서비스직		2.52(ab)	3.23	2.72	2.35	2.13
	전업주부		2.67(a)	3.20	2.71	2.26	2.03
	F		3.11*	.04	.49	1.26	2.60

\* $p < .05$ , \*\* $p < .01$ ,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p < .05$ )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20대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 성형을 하여 예뻐진 친구를 보게되면 성형욕구가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형위험수용의 경향은 전체적으로 낮아 위험을 감수하면서 성형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직업에 따른 성형태도의 차이는 성형비밀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업주부와 대학생이 사무직, 서비스직보다 자신이 성형한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어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학력과 사회계층에 따른 성형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의 성형태도는 학력 및 계층과 관련 없는 보편적인 태도라고 풀이된다.

### 3. 욕구,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와 성형태도의 상관관계

욕구, 자아존중감 및 신체만족도와 성형태도와 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욕구,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와 성형태도와의 상관관계

(n=813)

심리적 변인	성취욕구	지배욕구	과시욕구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성형태도					
성형비밀	-.022	.057	.028	-.115**	-.192**
성형가치	.141**	.110**	.129**	-.040	-.181**
성형동조	.066	.169**	.189**	-.161**	-.242**
성형비용지불	.007	.190**	.159**	-.178**	-.167**
성형위험수용	-.096**	.165**	.088*	-.181**	-.136**

\*p<.05, \*\*p<.01

<표 3>에서 보면 지배 및 과시욕구와 성형태도 변인과의 관계는 대체로 p<.01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성취욕구는 성형가치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나 성형위험수용과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서 성취욕구가 높은 여성일수록 성형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으나 성형위험을 수용하는 태도가 낮았다. 이것은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성형 후에 아름다워진다고 하더라도 성형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성형가치를 제외하고 성형태도의 4변인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형비밀, 성형동조, 성형비용지불, 성형위험수용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다. 신체만족도는 성형태도의 모든 변인과 부적 상관을 보여,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성형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것은 Lee(1997)의 결과와 일치하며, 신체만족도가 낮을수록 여성들이 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 4. 성형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관계

여성의 연령, 사회계층, 성취욕구, 지배욕구, 과시욕구,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의 7개 변인이 성형태도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stepwise)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의 회

귀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R<sup>2</sup> 이 0.1 이상인 경우의 변인만을 인과모형에 도식화하였다(그림1~3).

성형비밀에는 신체만족도(-), 지배욕구, 자아존중감(-), 사회계층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그 4개 변인의 설명력은 낮은 편이었다(R<sup>2</sup> =.054). 즉 신체만족도가 낮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지배욕구가 높고,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성형수술을 자기만의 비밀로 유지하려는 태도가 더 높았다.



<표 4> 성형태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n=813)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 <sup>2</sup>
성 형 태 도	성형비밀	신체만족도	-.050	-.176	-4.776**	R <sup>2</sup> =.054
		지배욕구	.054	.097	2.677**	F=11.464**
		자아존중감	-.053	-.093	-2.406*	constant=9.345
		사회계층	.164	.072	2.056*	D-W=1.740
	성형가치	신체만족도	-.071	-.198	-5.787**	R <sup>2</sup> =.062
	성취욕구	.088	.109	2.643**	F=17.884**	
	과시욕구	.065	.085	2.058*	constant=12.005	
					D-W=2.049	
	성형동조	신체만족도	-.109	-.211	-5.971**	R <sup>2</sup> =.132
		과시욕구	.177	.160	3.607**	F=30.776**
		자아존중감	-.173	-.170	-4.593**	constant=15.553
		지배욕구	.140	.140	3.105**	D-W=1.913
	성형비용지불	지배욕구	.197	.273	7.825**	R <sup>2</sup> =.111
		자아존중감	-.162	-.219	-5.878**	F=33.586**
		신체만족도	-.045	-.119	-3.330**	constant=10.896
						D-W=1.855
	성형위험수용	자아존중감	-.107	-.193	-5.005**	R <sup>2</sup> =.125
		지배욕구	.175	.324	8.257**	F=23.072**
		성취욕구	-.121	-.191	-4.801**	constant=8.417
		신체만족	-.027	-.095	-2.674**	D-W=1.898
		사회계층	.180	.080	2.390*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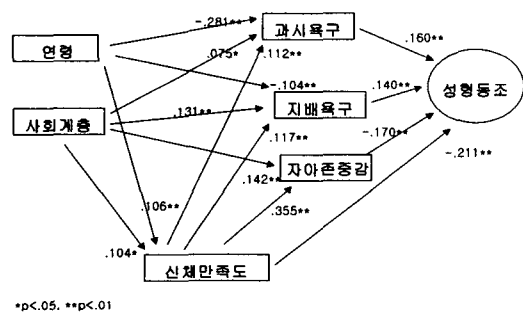
성형가치에는 신체만족도(-), 성취욕구, 과시욕구가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그 3개 변인의 설명력은 6.2%였다. 즉 신체만족도가 낮으며 성취욕구와 과시욕구가 높은 여성일수록 성형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낮으면서 야심적으로 과업을 성취하려 하며 타인에게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구가 높은 여성들은 신체를 성형하여 외모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것을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함을 의미한다.

성형동조에는 신체만족도(-), 과시욕구, 자아존중감(-), 지배욕구가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신체만족도가 낮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과시욕구와 지배욕구가 높을수록 성형에 대하여 동조하는 태도가 더 높았다. 성형동조에 대한 인과모형을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과시욕구에는 연령(-), 신체만족도, 사회계층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고(R<sup>2</sup> =.093), 지배욕구에는 사회계층, 신체만족도, 연령(-)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R<sup>2</sup> =.043). 자아존중감에는 신체만족도와 사회계층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고(R<sup>2</sup> =.157), 신체만족도에는 연령과 사회계층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R<sup>2</sup> =.022). 따라서 연령과 사회계층은 신체만족도를 통하여 과시 및 지배욕구,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성형동조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신체만족도도 과시 및 지배욕구,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성형동조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연령은 과시, 지배욕구를 통하여 성형동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사회계층은 과시, 지배욕구를 통하여 성형동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연령은 신체만족도를 통하여, 사회계층은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통해 성형동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신체만족도는 과시, 지배욕구를 통해 성형동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자아존중감을 통해서도 성형동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연령이 적고 사회계층이 높으면서 과시욕구와 지배욕구가 높은 사람

은 성형동조의 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적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 다양한 욕구가 강한 여성은 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연예인의 외모와 동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게 작용하여 성형동조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연령이 많고 사회계층이 높으면서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은 성형동조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연령이 많고 사회계층이 높고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은 주관적 가치판단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성형동조가 낮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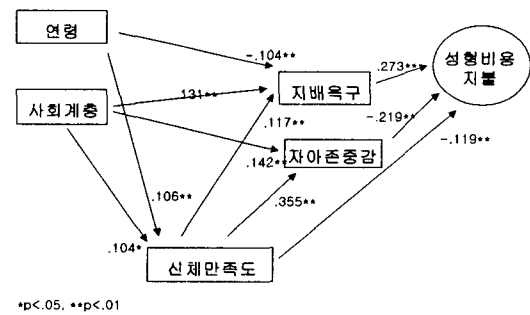


<그림 1> 성형동조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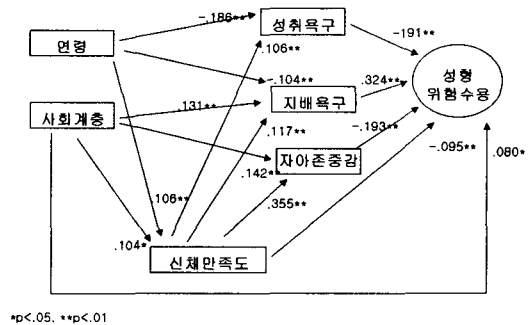
성형비용지불에는 지배욕구,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가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3개 변인의 설명력은 11.1%였다. 즉 지배욕구가 높으며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가 낮을수록 성형비용이 들어도 성형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비용지불에 대한 인과모형을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를 볼 때 연령(-)과 사회계층은 신체만족도, 지배욕구,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성형비용지불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사회계층이 높으면서 지배욕구가 높은 여성은 성형비용지불 의도가 높았다. 그러나 연령은 지배욕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므로 연령이 많으면서 지배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성형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또 연령이 많고 사회계층이 높으면서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은 성형비용지불 태도가 부정적이었다. 이

것은 신체만족도가 높은 여성은 성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은 외모보다 내면적인 면에 치중하게 되므로 성형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선행연구 (Tucker, 1982)에서 볼 때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은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므로 성형비용을 지불하는 데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이라고 해석된다.

성형위험수용에는 지배욕구, 자아존중감(-), 성취욕구(-), 신체만족도, 사회계층의 5개 변인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자아존중감과 성취욕구 및 신체만족도가 낮을수록, 또 지배욕구와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성형에 대한 위험을 수용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성형위험수용에 대한 인과모형을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을 볼 때 성취욕구에는 연령(-)과 신체만족도가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지배욕구에는 사회계층, 신체만족도,



<그림 2> 성형비용지불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그림 3> 성형위험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령(-)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연령이 많으면 지배욕구는 낮아지면서 성형에 대한 위험수용이 낮았으며, 또 연령이 많고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도 성형에 대한 위험수용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계층이 높으면서 지배욕구가 높으면 성형에 대한 위험수용도가 높았으나 사회계층이 높으면서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은 성형위험수용도가 낮아졌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지배욕구는 성형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자아존중감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성형위험을 수용하면서도 성형비밀을 중요시하였고 연령은 성형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여성의 욕구,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와 성형태도와의 관계를 밝히고, 성형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방법은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피험자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공주시에 거주하는 18~49세 여성 813명이었다.

연령에 따라 신체만족도와 욕구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신체만족도는 40대가 30대 이하보다 더 높았고 욕구는 20대 전반이 가장 높았다. 전업주부는 욕구가 가장 낮았으며, 대학생은 특히 과시욕구가 높았고, 신체만족도는 서비스직이 가장 높았다. 대졸 이상의 여성은 고졸 여성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고졸 여성은 타집단에 비해 욕구가 낮은 편이었다. 상류층은 중류나 하류층에 비해 신체만족도, 욕구, 자아존중감의 세 변인이 모두 유의적으로 높았다. 연령에 따라 성형가치, 성형동조, 성형위험수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성형가치와 성형동조는 20대와 30대가 높았고, 성형위험수용은 20대 후반이 높았다.

지배욕구와 과시욕구가 높은 여성은 전반적인 성형태도가 높았으며, 성취욕구가 높은 여성은 성형가치를 긍정적으로 보았으나, 성형위험수용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자아존중감은 대부분의 성형태도와 부정적인 상관을 보여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은 성형을 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성형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볼 때 성형동조에는 신체만족도, 과시욕구, 자아존중감, 지배욕구가 동시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신체만족도가 낮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과시욕구와 지배욕구가 높을수록 성형에 대하여 동조하는 태도가 더 높았다. 연령은 과시 및 지배욕구에 영향을 주었고, 신체만족도와 사회계층은 과시 및 지배욕구,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었으며, 신체만족도에는 연령과 사회계층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연령과 사회계층은 신체만족도를 통하여 과시 및 지배욕구,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성형동조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연령이 적고 사회계층이 높으면서 과시욕구와 지배욕구가 높으며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가 낮은 사람은 성형동조의 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성형비용지불에는 지배욕구,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가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지배욕구가 높으며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가 낮을수록 성형비용이 들어도 성형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연령과 사회계층은 신체만족도, 지배욕구,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성형비용지불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성형위험수용에는 지배욕구, 자아존중감, 성취욕구, 신체만족도, 사회계층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자아존중감과 성취욕구 및 신체만족이 낮을수록, 지배욕구가 높고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성형에 대한 위험을 수용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연령과 사회계층은 신체만족도, 욕구, 자아존중감, 성형태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특성이며, 신체만족도, 욕구, 자아존중감의 세 변인은 성형태도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욕구가 높은 여성은 성형수술과 같은 신체변형을 통해 외모를 수정하는 것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은 성형수술과 같은 신체변형을 통해 외모를 수정하는 것을 낮게 평가함으로써 아직도 자존감이 높은 여성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이 잠재

하여 성형수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형태도가 신체 특정부위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성형태도에 영향을 주는 신체만족도를 조사할 때에 키와 같이 성형 불가능 부위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것은 연구의 한계점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성형부위를 고려하여 성형태도 및 신체만족도를 조사하며, 이미 성형을 실시한 사람들을 구분하여 외모에 관한 태도와 심리적 특성을 관련지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강혜원 (1999).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 2) 김미경 (1990). 의복착용자의 욕구 및 인구통계적 변인과의 관련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3) 김은주 (2001).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4) 문화자 (1985). 여고생의 욕구와 의복행태간의 관계연구: 부산시 여고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5) 박광희, 강혜원 (1984). 여고생들의 의복행태와 성격특성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8(1), pp. 13~19.
- 6) 박찬부 (1980). 의복행태와 욕구와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인문대학 연구소 논문집, 8. pp. 125~151.
- 7) 양계민 (1993). 자신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8) 유영천, 이두형, 장충현 (1994).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태도 조사(I). 대한성형외과학회지, 21(3), pp. 452~459.
- 9) 이금실, 강혜원 (1978). 의복의 신분상징성과 사회심리학적 변인과의 상관연구: 서울의 가정주부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 pp. 79~86.
- 10) 이두형, 장충현 (1994). 미용성형외과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조사연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pp. 1138~1147.
- 11) 이미숙 (2000). TV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태 및 모방행태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12) 이영운, 강혜원 (1982).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태와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6(2), pp. 17~24.
- 13) 이은실 (2000). 남성의 성 지향 및 심리적 특성에 따른 의복행태와 외모장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14) 이훈구 역 (2001). 성격심리학. 서울: 법문사.
- 15) 정하신, 이인자 (1983). 의복선택변인과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7(1), pp. 27~36.
- 16) 황정규 (1968). 욕구진단검사. 서울: 코리아테스팅센터.
- 17) Bloch, P. H., & Richins, M. L. (1992). You look "Marvelous": The pursuit of beauty and the marketing concept. *Psychology and Marketing*, 9, pp. 3~15.
- 18) Cash, T. F. & Horton, C. E. (1983). Aesthetic surgery: Effects of rhinoplasty on social perception of patients by others.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72, pp. 543~548. In Cash, T. F. & Pruzinsky, T. (Eds.). *Body images: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19) Cash, T. F., Winstead, B. A., & Janda, L. H. (1985). Your body, yourself: A psychology today reader survey. *Psychology Today*, 19(7), pp. 22~26. In Cash, T. F. & Pruzinsky, T. (Eds.). *Body images: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20) Creekmore, A. M. (1963). Clothing behaviors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the striving for basic needs.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21) Franzoi, S. L. & Stephanie, A. S. (1984). The body esteem scale: multidimensional structure and sex difference in a college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2), pp. 173~178.
- 22) Jackson, L. A., Sullivan, L. A., & Rostler, R. (1988). Gender, gender role, and body image. *Sex Roles*, 19(7/8), pp. 429~443, cited by Lee, Miran Yang(1997). Relationship of body image acculturative stress, and self-esteem among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Ohio State University.
- 23) Kaiser, S. B. (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 24) Lee, Miran Yang(1997). Relationship of body image acculturative stress, and self-esteem among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Ohio State University.
- 25) Lennon, S. J., & Rudd, N. A. (1994). Linkages between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body

- satisfaction, self-estee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n women.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 Research*, 23(2), pp. 94~118.
- 26) MacGillivray, M. S., & Wilson, J. D. (1997). Clothing and appearance among early, middle and late adolescen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5(1), pp. 43~49.
- 27) Mary, E. P., Joanne, B. E., & Kim, K. P. (1995). *Dress and identity*.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
- 28) Musa, H. E. & Roach, M. E. (1979). Adolescent appearance and self-concept. *Adolescence*, 8, pp. 385~394.
- 29) Newman, B. M. & Newman, P. R. (1975). *Development through life: A psychological approach*, 김희화, 김경연 (199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성별차이와 발달적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37(5), pp. 1~15에서 재인용.
- 30) Pasnak, M. F. D., & Ayres, R. W. (1969). Clothing attitude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fashion innovators. *Journal of Home Economics*, 61(9), pp. 698~702.
- 31) Perry, M. O., Schutz, H. G., & Rucker, M. H. (1983). Clothing interest, self-actualization and demographic variabl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3), pp. 280~288.
- 32) Rosenberg, M.(1965), *Social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33) Tucker, L. A. (1982).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matotype and body cathexis of collage males. *Psychological Report*, 50, pp. 983~989.